

밤에도 폭폭 찌다... ‘폭염특보’ 광주·전남 곳곳 열대야 이어져

광주기상청, 광주·목포·여수·함평 등 열대야 나타나
 강한 햇볕에 습도 높아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 35도 안팎

폭염특보가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 곳곳에서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밤 최저기온은 광주 25.9도, 목포 25.4도, 여수 25.1도, 함평 25도 등을 기록해 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광주와 전남 22개 전 시·군에 내려진 폭염 경보는 9일째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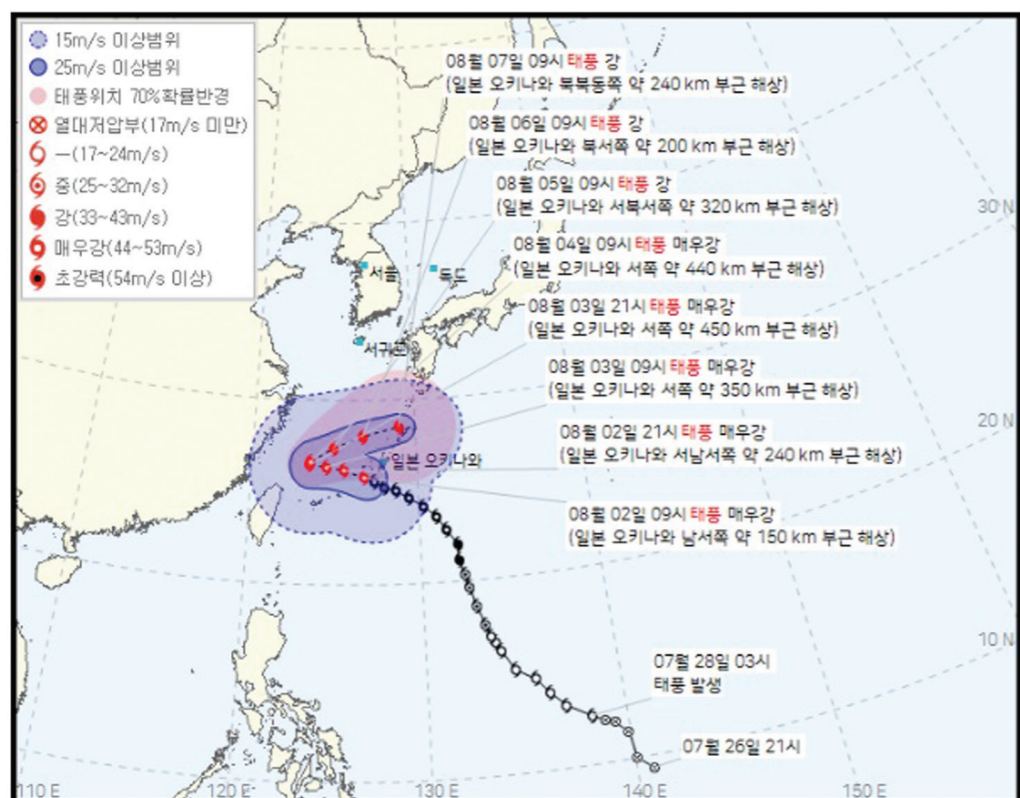
일몰 이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당분간 도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약자는 낮 시간대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며 “농작물·수산물 등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변용일기자



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시민들이 부채질을 하며 한밤중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태풍 카눈, ‘日 남쪽’ 경로에 무게... 무더위 계속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남쪽을 향할 것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상청은 2일 발표한 태풍정보에서 이날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150km 부근 해상을 통과한 카눈이 오는 3일 오후 3시 오키나와

서쪽 450km 해상에 이른 뒤 방향을 급격히 틀 것으로 봤다. 오는 4일부터는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일본 남쪽 지역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카눈의 중심기압은 930hPa(헤토파스칼), 중

오키나와 해상서 북동쪽 선회... 日 남부로 美·日·中 등 기상당국도 비슷한 전망 내다 카눈 영향으로 인한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

심기압 최대풍속은 초속 50m로 매겨졌다. 이는 태풍 강도 중 ‘매우 강’에 해당하는 수치다. 카눈은 오는 9일까지 ‘매우 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카눈의 이동 경로와 관련,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와 일본·중국·대만 기상당국의 최신 전망도 한국 기상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카눈이 일본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다만 기상청은 지난 1일 진행될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카눈을 중심으로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고기압들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3일 이후 재편되는 중위도 기압계 상황에 따라 카눈이 따라갈 지향류가 결정되고, 이후 경로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3일 이후) 어떤 세력이 태풍을 견인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카눈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로 인한 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도 우리나라 낮 최고 기온은 33-35도를 오르내릴 것이라며 “당분간은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기동취재본부

‘휴가철 무차별 확산’ 광주·전남 한 달새 신규 확진자 2배 경증

일주일 사이 2만 4884명 확산... 증가세 방역 해제 이후 첫 휴가철 확산 전망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사이 2배 급증했다. 방역 당국은 여름 휴가철 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개인 위생 관리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광주·전남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1만 1043명, 전남이 1만 3841명으로 총 2만 4884명에 달한다.

이 기간 중 코로나19 사망자는 광주 2명, 전남은 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한 주 동안 광주에선 하루 평균 15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977명 꼴이었다.

한 달 사이 주간 신규 확진자 수도 폭증했다. 앞서 지난달 5일부터 11일 사이 주간 감염자는 광주 5685명, 전남 6133명이었으나,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수치화한 감염 재생산지수도 광주가 1.06, 전남이 1.10으로 나타났다. 감염 확산세를 나

타내는 1.0 이상이 꾸준히 이어지며 여름철 유행 국면에 진입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휴가철 이동량·밀접 접촉자 증가로 코로나19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면서 무차별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달 초 본격적인 휴가 성수기에 접어들며, 당분간 감염 확산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 이른 독감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요의주시하고 있다.

시·도 관계자는 “확진자는 급증하지만 예방접종 비율이 크게 올라 사망자는 많지 않다. 치명률 역시 0.02% 안팎 수준이다”면서 “휴가철 중에는 감염 취약 또는 다중 밀접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 환기 등 일상생활 속 예방 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슬비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